

1권

국어



이 책의 특징

1. 2022개정 내체표 + 1-6학년 성취기준 + 각론
2. 국정 지도서 각론 구조화
3. 단원별 초등 · 중등 기출문제
4. 각론 + 국어과 교육론

초등 교사 임용시험 대비

· 국정 지도서
· 각론 단권화를
· 한번에 끝내는

한 권으로 지도서

각론편

각론
별개기

내체표 + 성취기준 + 각론

2025학년도 A - 3 문제

(가)

교사 B: 네, 저도 실제로 기부금을 보냈다는 그 기사 봤어요. 이 사례처럼 학생들이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연계된 글쓰기를 하면 쓰기를 매개로 한 소통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쓴 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요.

교사 A: 맞아요. 쓰기 전략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 자신이 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적 쓰기에 대한 경험이 필자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나 신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선생님 조언을 반영해서 ㉡ 우리 학교의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교장 선생님께 제안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로 쓰기 과제를 수정해 수업을 해야겠어요.

- 2) ① **쓰기의 정의적 요인** 중 (가)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②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쓰기의 정의적 요인 평가상의 유의점**을 쓰시오. [2점]

2024학년도 A - 3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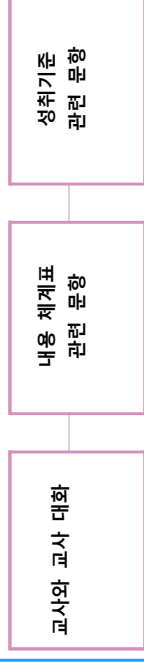
(가)

평가 과제: (㉠)
 . 평가 과제 구성의 중점
 - 학습 목표와 관련된 평가 요소를 설정하되, 감각적 표현을 활용한 **표현 활동**을 포함함.
 - **감각적 표현은 시에서는 물론 일상의 언어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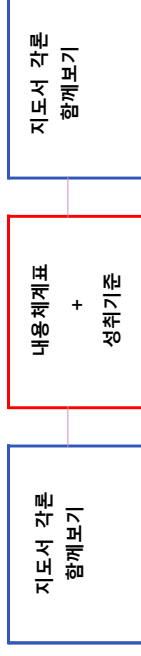
- 3) (가)의 [B]를 반영하여 ㉡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 수업의 평가 과제**를 1가지 제시하시오. [1점]

기술 문제 출제 방식 ▶ 교재구성

기술 문제 출제 방식



교재 구성 [P. 19/33 참고]



[정답: 출처 - 2022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① 쓰기 효능감
- ② **테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을 평가할 때는 일회적 평가보다 누적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쓰기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구성한다.**

[정답: 출처 - 2022개정 교육과정 (가) 성취기준 해설]

[4국05-04] 이 성취기준은 문학 표현 방식의 효과와 기능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어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감각적 표현을 통해 작품 속에 형성화된 대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면서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써 보고**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게 한다.

2022학년도 A - 1 문제

(가)

학생 2 : 저는 '발다의 [1] 「1」의 뜻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 내 동생은 여러 가지 색연필을 많이 받
았다.

㉡ 전문가라도 동물의 멸종시기를 일일이 알
아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 1 : 저는 '멸종'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2) (나)의 ㉠, ㉡으로 고쳐쓰기를 지도하려고 한다. ㉠ ㉡의 **서술어가 요구하**
는 필수 문장 성분을 모두 쓰고, ㉢ ㉣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2점]

2023학년도 A - 2 문제

(가)

나는 누리집에 올릴 글을 쓰는 수업인 만큼, 글의 의미가
글 자체로 또는 필자의 인지 전략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가
르치고자 하였다. 그래서 글을 읽을 독자로 예상되는 사람
들이 두루 공유하고 있는 지식, 신념이나 가치 등을 반영하
여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한
다고 지도하였다. 그리고 가시적인 실제 독자를 넘어서 비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예상 독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글을
살펴보니 주장하는 글의 장르적 특성과 그러한 글이 소용
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후 글쓰기 수업에서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장르 관습과 글쓰기 규범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겠다.

1) [A]에서 교사가 수업의 전제로 삼고 있는 **쓰기 이론**에 근거하여 ㉠에 해
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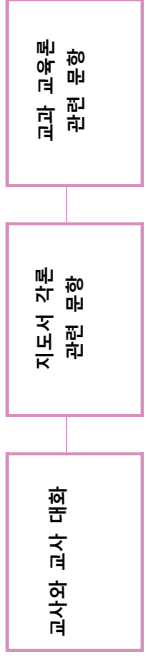
[정답: 출처 - 2022개정 교육과정 지도서 각론 / 교과교육론]

서술어의 자릿수
•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에 사용된 ‘주다’는 주어, 목적
어, 부사어 세 가지를 요구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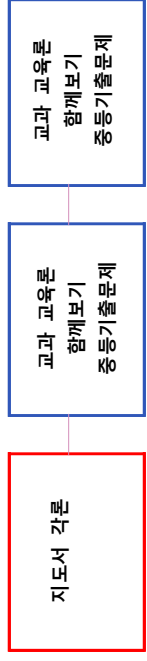
-이와 -히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 반복되거나,
낱말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ㅅ·ㅈ·ㅊ’로 끝나거
나, 낱말의 변하지 않는 부분의 ‘ㅂ·ㅇ’이 없거나
는 경우, 낱말의 변하지 않는 부분에 ‘-하다’
가 붙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이’를 사용한다.
뜸들이, 줄줄이, 검검이, 깨
끗이, 빼듯이, 따듯이, 오뎅
이, 그득이, 많이, 같이, 높
이, 일일이

기출 문제 출제 방식 ▶ 교재구성

기출 문제 출제 방식



교재 구성 [P. 83/100 참고]



(1) 듣기 · 말하기

핵심 아이디어		· 듣기 · 말하기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 화자와 청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 ·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듣고 말한다. ·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듣기 · 말하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듣고 말한다. · 화자와 청자는 듣기 · 말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	
범주		내용 요소	
		1~2학년	3~4학년
지식 · 이해	듣기 · 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 대화 · 발표	· 상황 맥락 · 사회 · 문화적 맥락 · 대화 · 면담 · 발표 · 토의 · 토론
	담화 유형		
과정 · 기능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	· 집중하기 ·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 주장, 이유,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기
	내용 생성 · 조직 · 표현과 전달	·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 청자와 매체 고려하기 · 자료 선별하기 · 핵심 정보 중심으로 내용 구성하기 · 주장, 이유, 근거로 내용 구성하기 · 매체 활용하여 전달하기
	상호 작용	· 말차례 지키기 · 감성 나누기	· 금한 내용 질문하기 · 절자와 규칙 준수하기 · 협력적으로 참여하기 · 의견 비교하기 및 조정하기
	점검과 조정		· 듣기 · 말하기 과정과 전략에 대해 점검 · 조정하기 · 듣기 · 말하기 효능감
가치 · 태도		· 듣기 · 말하기에 대한 흥미	· 듣기 · 말하기에 적극적 참여

‘듣기 · 말하기’ 영역에서는 듣기 · 말하기의 다양한 목적과 맥락을 반영하여 구어 의사소통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구어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듣기 · 말하기의 전략을 점검 ·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상대와 상호 작용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 · 학습 활동을 설계한다. 듣기와 말하기를 분리하지 않고 상호 통합하여 지도하여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 교섭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국어과의 타 영역 성취기준, 타 교과 성취기준, 비교과 학습 주제를 참고하여 학습자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연계하여 담화의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교수 · 학습의 실제성을 확보한다.

‘듣기 · 말하기’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구어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소통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화, 면담, 발표, 연설, 토의, 토론 등 담화 유형별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는, 각각의 담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모두 평가하기보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학년군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구어 의사소통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실제적인 담화 맥락을 조성하여 평가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직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학습자 특성이나 학급 상황을 고려하여 녹화 기록법, 관찰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태도를 평가할 때는 일상의 구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성찰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 점검표나 성찰 일지를 활용하여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평가한다.

■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 · 정서 표현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1 상호 교섭성

음성언어 의사소통은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자가 이를 이해하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발화 상황 안에서 참여자가 함께 교섭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즉, 의미는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고 듣기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에 의해 상호 교섭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준비된 말하기라고 해서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안된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이것 역시 **청중과 함께 의미를 공유해 가는 상호 교섭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청중을 보면서 준비한 내용을 기억하여 말하고,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화법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준비된 말하기를 할 때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대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도하고, 실제 청중들 앞에서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해 보게 하는 과정을 모두 경험하도록 한다.

상호교섭성 성격이란 화법은 참여자들이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교섭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임을 가리킨다.

2 순서 교대의 의미와 유의점

대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대화에 참여해 실제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기회에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 결과물을 **순서 교대**라고 한다.

- 모든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진행 방향과 순서 교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대화 참여자는 적절한 말차례 권리를 가져야 한다.
- 현재의 화자는 말차례 중간에는 자신의 발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하고, 말차례가 끝났을 경우에는 **비언어적 신호나 언어적 신호**를 다른 참여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대화 진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나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은 말차례의 순서를 배당하는 발화를 하여 적절한 순서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순서 교대 직접 시정(일반적으로 문장이 끝나는 지점, 즉 문장 종결 어미)에서는 대화의 주제나 대화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서 선택의 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022 개정 1~2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핵심 아이디어

- 듣기·말하기는 언어, 준언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 화자와 청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듣고 말한다.
-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듣고 말한다.
- 화자와 청자는 듣기·말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1~2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맥락 대화 발표
	담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중하기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바른 자세로 말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차례 지키기 감정 나누기
상호 작용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	듣기·말하기에 대한 흥미

[2국01-03] 이 성취기준은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 교섭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으로, 대화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순서를 교대하며 구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기,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거나, 고갯짓, 시선, 억양 등의 말차례 교환 신호를 활용하여 다음 사람이 말차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말차례 교환 신호를 확인하여 자신의 말차례 지키기 등을 학습한다.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중등문제 함께보기]

구어 의사소통에는 사전 준비 없이 하는 ‘즉흥적 말하기’와 말할 내용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준비된 말하기’가 있다.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할 때 발표문을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어렵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넘어 (㉠)을 통해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청중의 반응에 따라 말할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 가며 역동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무시한 채 준비된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다르다.

㉠ 상호교섭성

㉡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 - 집중하기

청자의 듣는 태도는 화자에게 수많은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청자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침묵하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등은 그 자체로 화자에게 많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 청자의 반응은 얼굴표정, 고개 고각임, 침묵 등의 비언어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질문하기**와 같은 적극적인 언어 표현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듣기 또한 표현 행위라 할 수 있다.

- 음수, 낱말, 어구, 문장 - 언어적 요소
- 억양, 강세, 속도 - 준언어적 요소
- 얼굴 표정, 시선, 몸짓 - 비언어적 요소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① 말차레를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 말을 할 때에는 말의 주도권에 해당하는 말차레가 있다. 말차레는 **먼저 말한 사람**에게 있고, 이를 가져가려면 상대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다 말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 대화를 할 때에는 **말차레와 함께 대화 내용, 듣기 태도**도 생각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②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 **표정이나 몸짓은 말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거나 완성한다.**
- 머리를 끄덕이거나 중얼거리는 소리 등은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동안 청자가 화자에게 동의하거나 계속 말 듣기를 원한다는 **격려**의 뜻을 전달하는 등 여러 종류의 피드백을 수행한다.
- 이렇듯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초가 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만큼이나 **표정, 몸짓, 자세, 어조**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고마움이나 반가움을 전하고 슬픔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인사말 자체라기보다 비언어적 표현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③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 ① 고개를 들고 말한다.
- ② 눈은 듣는 사람을 바라본다.
- ③ 표정은 밝게 웃는다.
- ④ 배에 가볍게 힘을 준다.
- ⑤ 손은 편안하게 내리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 ⑥ 허리는 곧게 세운다.
- ⑦ 발은 자연스럽게 벌리고 선다.
- ⑧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④ 듣기 자세 점검표(교사 읽기 자료)

1.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들었나요?
2.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나요?
3.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앉았나요?
4. 손은 허벅지나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나요?
5. 다리를 가지런히 했나요?

2022 개정 1~2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범주	듣기·말하기 맥락	내용 요소 초등학교 1~2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 대화 · 발표
	답화 유형	· 집중하기 ·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 검점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 말차레 지키기 · 감정 나누기
	상호 작용	· 듣기·말하기에 대한 흥미
가치·태도	· 점점과 조정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올바른 구어 의사소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말차레 지키기나 바르고 고운 말로 말하기에 대해 학습하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말차레 지키기**와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를 실천하도록 한다.

감정 나누기를 지도할 때는 화자의 감정을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감정 표현도 이해하며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하기를 지도할 때는 학습자가 공적 발표 상황에 대해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발표 수행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료 학습자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상호 격려하는 교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⑤ 바른 발표 자세

-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 **바른 자세**로 말한다

⑥ 발표할 때 주의할 점 확인하기

•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자신 있고 분명하게 끝까지 말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 때에는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발표가 끝이면 중요한 점을 **결론**하게 하여 친구가 생성한 소개할 내용을 보충하게 하고 글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자료로 쉽게 한다

⑦ 일이 일어난 차레를 생각하며 말하기

• ‘아침’, ‘저녁’, ‘오후’, ‘7시’ 등과 같은 **시간 표현은 일이 일어난 순서를 드러낸다**. 이러한 시간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 일이 일어난 차레대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⑧ 우리말에서 시간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말에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장에서 어휘로 시간을 지정해서 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은 자연 현상을 중심으로 시간을 표현한 어휘이다. 또, ‘초’, ‘분’, ‘시간’, ‘날’, ‘해’ 등과 같이 시간의 길이를 중심으로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다.

둘째는 **말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장 내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어미를 통해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에서 ‘-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초등문제 함께보기]

면담 시 지켜야 할 대화 예절을 안내하여 면담의 전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다. 가령 [A]처럼 대화에서 ()의 기본 규칙을 아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등 ()을/를 지키면서 예의를 갖추고 바른 태도로 대화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다.

말차레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①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대화 지도에 대한 학습은 실제 언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대화의 문제점을 깨달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 **녹화 기록법**
 교사와 학생의 관찰도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학습자들의 수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해 두었다가 교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생하여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배려하는 말 하기**
 대화의 원칙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배려하는 말 하기이다.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기분이 어떠할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배려하는 말 하기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듣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부하거나 이점하는 말과는 구별된다.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1. 다음은 위 수업을 위해 최 교사가 계획한 지도 내용이다. A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쓰시오.

인사말 하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인사말의 두 가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업 자료가 (A) 상황에서의 인사말임을 알도록 하고, 인사말 하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야겠다.

공식적
 2. ○과 ⊙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 두 반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진희: 오늘 급식이 참 맛이 있었어.
 민영: ⊙(고개를 끄덕인다)
 진희: 나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이 있었어.
 준수: ⊙(나도 그래).

공통점: 맞장구치기 전락
 차이점: ⊙은 비언어적 표현이고, ⊙은 언어적 표현이다.

2022 개정 1~2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1~2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답화 유형 · 대화 · 발표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 집중하기 ·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가치·태도	상호 작용 · 말차레 지키기 · 감정 나누기
	점점과 조정 · 듣기·말하기에 대한 흥미

[2국01-02] 이 성취기준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등 다양한 감정과 관련된 표현 알기,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등을 학습한다.

[2국01-04] 이 성취기준은 교실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른 자세로 표현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간단히 말하기, 자신의 경험이 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말하기,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하기,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기, 적절한 크기의 소리로 말하기 등을 학습한다.

[2국01-05] 이 성취기준은 삶에서 듣기·말하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듣기·말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듣기·말하기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의사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임을 인식하기, 듣기·말하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경험해 보기, 다양한 놀이를 통해 듣기·말하기에 흥미 가지기 등을 학습한다.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③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
 소극적 듣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집중하기'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에게 집중해 눈을 맞추고, 몸을 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이다. '격려하기'는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다.

적극적 듣기는 화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해주는 구실을 해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 '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 재진술해 주는 기술로, 상대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음을 알리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반영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공감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④ **공감적 화법의 개념**

공감적 화법은 대화 상대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의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여 그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화법이다. 또 공감적 화법은 정서적 공감 및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는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언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적 화법이다

⑤ **공감을 키우는 대화**

① **관심 갖고 질문하기**

A: 형, 이거 봐! 나, 이 빼졌다.
 B: 와, 흔들리던 이가 빠져서 엄청 시원하겠네. 어쩌다 빼졌는데?

② **적절히 맞장구치기**

A: 너무 급해서 막 뛰여 들어갔더니, 글썽 남자 화장실이지 뭐야.
 B: 어머머, 웬일이니! 진짜 참피했겠다.

· 맞장구치는 방법에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짧게 드러내는 방법, 공감하며 호응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친구들과 맞장구치는 말을 사용해 이야기할 때는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⑥ **공감적 의사소통의 특성**

- **객관적 관점**에서 의사소통한다
-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이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
-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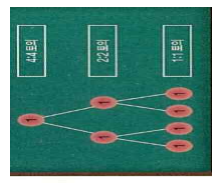
3~4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1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며 듣기

- 듣기 전에 '듣는 목적', '배경지식', '강조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학생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록 쓰기, 기호 사용, 숫자 활용** 등 효과적인 정리하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한다

2 토의 절차

	토의 방법
토의 절차	-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판단하기 - 토의 주제 결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 토의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견 쓰기 ①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 ②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나요? ③ 실천할 수 있나? - 그 의견이 좋은 까닭 쓰기
의견 모으기	- 친구들과 의견 주고받기 - 각 의견의 장단점 찾기 -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 세우기 - 기준에 따라 의견이 알맞는지 판단하기 소수의 학습자가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의견 결정하기	- 기준에 따라 가장 알맞은 의견으로 결정하기



3 토의 사회자의 역할

특정 토의자가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면서 소극적 참여자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며, 토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의견 충돌 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2022 개정 3~4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범주	듣기·말하기 맥락	내용 요소 초등학교 3~4학년
지식·이해	대화 발표 토의	상황 맥락
	답화 유형	중요한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내용 요약하기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내용 예측하기
	내용 확인·추론 평가	목적과 주제 고려하기 자료 정리하기 원인과 결과 구조에 따라 조직하기 주제에 적절한 의견과 이유 제시하기 주언어·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내용 생성·조직 표현과 전달	상황과 상대의 입장 이해하기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기 의견 교환하기
	상호 작용	듣기·말하기 과정과 전략에 대해 점검 조정하기
과정·기능	적용	듣기·말하기 효능감

[4국01-03] 이 성취기준은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향, 어조, 속도 등의 준언어적 표현과 표정, 시선, 몸동작, 자세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주언어·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이해하기, 주언어·비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 파악하기, 주언어·비언어적 표현의 적절한 성 점검하기, 상황에 적절한 주언어·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등을 학습한다.

[4국01-05] 이 성취기준은 교과 학습 상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발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어진 자료에서 **발표 목적과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 정리하기, 준비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점검하며 발표 연습하기, **주언어·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며 발표 연습하기, 연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정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기 등을 학습한다.

[4국01-06] 이 성취기준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으로 서 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3~4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4 발표할 때 주의할 점

- 책을 읽듯이 발표 원고를 읽으며 발표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발표한다.
-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발표한다.
- 발표를 듣는 친구들에게 보여 주는 글은 짧게 쓰고 자세한 내용은 말로 발표한다.
-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이를 알맞게 활용하여 발표한다.

- 책이나 백과사전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야
-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야.
- 설명하는 말에는 동물의 생김새, 먹이, 사는 곳, 멸종 위기에 놓인 까닭과 같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써 봐요.
- 끝맺는 말에는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를 듣고 함께 생각할 점 따위를 써 봐요.

5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는 방법 알기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말했나요?
-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했나요?
- '그래서', '왜냐하면'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말했나요

6 온라인 대화

	관찰 기준
계획하기	• 온라인 대화를 할 상대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택했는가? • 좋은 점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했는가?
온라인 대화 하기	• 온라인 대화를 할 상대가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인가? •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았는가?
참여 태도	•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이나 그림말을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았는가? • 상대의 허락 없이 대화를 끊지 않았는가? •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1-2학년] 2022 개정 각론

[1-2학년] 지도서 각론

한글 놀이

[듣기·말하기/ 읽기 / 문법 성취기준]

듣기·말하기[2국01-03]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말차레를 지키며 대화한다.

읽기[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문법[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① 한글 놀이마당의 개념과 설정 배경

- (1) 한글 놀이마당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글 이해 및 익힘 시간의 증가로 설정된 특화 단원이다.
 - (2) 한글 놀이마당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사회·발달적 특성과 학습 준비도 등을 고려해 놀이를 하며 한글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구성했다.
 - (3) 한글 놀이마당은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기간에 특별하게 계획된 한글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했다.
 - (4) 한글 놀이마당은 초기 문자 지도 학습을 위해 1학년 1학기 초에 34자시를 기본으로 설정했고, 학생들의 상황, 교육과정 및 재구성에 따라 시간을 더 운영할 수 있다.
- * 한글 놀이 마당명: 한글 놀이

② 한글 놀이마당의 설정 목적과 목표

- (1) 한글 놀이마당은 '한글 놀이'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 (2) 글자를 익히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과 여러 가지 놀이로 한글 자모음자를 익힘으로써 초기 문자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 (3) 학생들이 자모음자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소리 내어 읽으며 글자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③ 한글 놀이마당 구성의 실제

- (1) 한글 놀이마당은 글자 놀이, 모음자 놀이, 자음자 놀이의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세 개의 소단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단원 내에서 이야기로 연결하여 구성했다.
- (2) 글자 놀이 소단원은 한글 해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놀이로 구현한 것으로, 선 굵기, 그림 구별하기, 기호 변별하기, 기호와 글자 모양 구별하기, 소리마디(음절) 인식하기, 동음절 연상을 활용한 말놀이 하기 등 다양한 문자 해득 학습 준비 활동으로 구성했다.

한글 놀이

(3) 모음자 놀이 소단원은 여러 가지 모음자 모양을 글자 속에서 찾고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글자들 속에 모음자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 뒤 모음자를 소리 내어 보고 쓰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또 모음자 미리 빠져나가기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음자 만들기 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로 모음자를 익히며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4) 자음자 놀이 소단원은 모음자 놀이 소단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음자가 글자 속에 있음을 알게 한 뒤, 자음자를 쓰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이때 기본 모음자와 결합해 소리 내기를 하고,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를 비교하며 자음자 학습 및 소리 내기 학습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리고 자음자 만들기, 동음절 연상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자음자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5) 한글 놀이마당 실천 학습에서는 글자 없는 그림책을 활용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이야기에 나온 낱말을 중심으로 자모음자를 다시 확인하고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④ 한글 놀이마당 운영의 유의점

- (1)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습임을 고려해 학습자의 흥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서에 제시된 놀이 활동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한다.
- (3) 한글 놀이마당의 설정 취지를 고려해 34자시보다 줄여서 학습하는 것은 지양한다.

⑤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키우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즐겁게 적응하며 모든 학습의 기초 소양인 한글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단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글자 놀이를 하고, 모음자와 자음자를 익히며 서로 협동하고 협업하는 활동을 하며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단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 초기 적응을 위해 친구들과 어울려 글자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하며 한글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 ② **기본 모음자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아보고 모음자를 활용한 놀이를 하며 한글을 익혀 나가도록 한다.
- ③ **기본 자음자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자음자를 활용한 놀이를 하며 한글 자모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자 습득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한글 놀이

이 단원의 활동을 하며 한글 모음자와 자음자를 익혀 한글 습득의 기초를 다지고 초등학교 학습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또 친구들과 글자를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협동과 협업을 경험하고 즐거운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다.

⑤ 단원 평가 방법

(1) 평가방법

- ▶ 여러 가지 그림에서 글자인 것과 글자가 아닌 것을 구별해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낱말의 소리를 식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모음자 놀이' 부분은 모음자의 이름을 듣고 알맞은 모음자를 찾아 표시하고, 낱말에 있는 모음자를 찾아 쓰는 활동으로 평가한다.
- ▶ '자음자 놀이' 부분은 자음자 이름 알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음자를 순서에 맞게 쓰는 활동으로 평가한다.

(2) 평가에 따른지도 방안

평가결과

지도방안예시

선 긋기, 색칠하기 등의 활동에 미숙해 정교하게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입학 초기에는 심이 무른 연필(4B 또는 2B)이나 색연필을 활용해 선 긋기 연습을 반복하면서 차츰 정교한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음자를 듣고 찾을 수는 있으나 쓰는 순서가 틀리는 경우

- 모음자를 듣고 찾을 수는 있으나 쓰는 순서가 틀리는 경우에는 순서에 맞게 모음자를 쓸 수 있도록 공책이나 연습장에 충분히 연습하게 한다. 글자 자체에 흥미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쓰기에 접근한다.

자음자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자음자를 순서에 맞게 쓰지 못하는 경우

- 자음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음자가 어떤 소리를 지니고 있는지 같은 자음자가 들어가 있는 낱말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그 소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글 놀이

1 한글 문해 준비도

읽기와 쓰기를 하기 전에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를 **‘한글 문해 준비도’**라고 한다. 한글 문해 준비도에는 단어를 인식하고 낱자를 익히는 데 기초가 되는 시지각 식별과 책의 구성 요소 인식 등이 포함된다.

시지각 식별은 시각 변별, 눈과 손의 협응, 도형의 형태 변별, 공간 관계 등 시지각적 자극에 대해 구별되는 자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도형과 글자의 구분, 형태 변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지각 변별은 단순히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능력만이 아니라 두뇌 작용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자극의 해석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 한글 문해 준비도 학습 요소

- 도형의 위치 및 형태 변별하기
- 글자 형태 변별하기
- 책의 앞뒤면 구분하기
- 책 제목 및 역할 알기
- 읽기 방향 인식하기

◆ 모양이 같은 글자 찾기 놀이 하기



- 「국어」 21쪽은 놀이 활동으로 진행한다. 모양이 같은 글자를 찾으며 **글자 변별과 인지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한글 놀이

2 소리마디 구분하기 - 이들의 소리마디 수가 같은 동물 찾기



지도의 유의점

- 이 차시는 첫째 마당의 기본 학습으로, 낱자(모음자, 자음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전에 학생들이 음운을 인식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 **음운 인식**은 교사가 들려주는(읽어 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구별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이 차시에서는 글자 수가 같은 낱말 찾기,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찾기 등의 활동을 한다.
- 이 차시의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문자를 배우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므로 수업 중에 문자를 읽거나 쓰는 활동이 아니라 소리를 듣거나 말하며 음운을 변별하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

한글 놀이

3 음운 인식 활동 예시




활동 이름	용례
다른 소리 찾기	‘무릎’, ‘머리’, ‘가구’의 그림을 보여 주며) 다른 소리로 시작하는 말은 무엇일까? (가구)
음운 숫자 세기	‘물’은 소리가 몇 개일까? (음절 단위는 하나, 음소 단위는 셋)
소리 합치기	고, ‘양’, ‘이’ 소리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될까? (고양이)
음운 분절	‘고양이’를 작은 소리로 나누면 어떤 소리가 들어 있을까? (고, 양, 이)
음운 탈락	‘비웃’에서 ‘웃’ 소리를 빼면 무슨 소리가 남을까? (비)

4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찾기



한글 놀이

① 시작하는 소리가 다른 낱말 그림을 찾아 ○표를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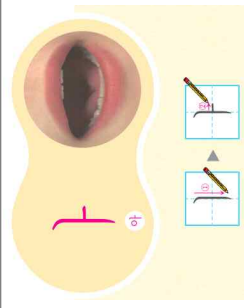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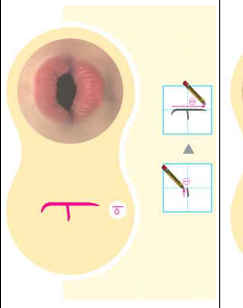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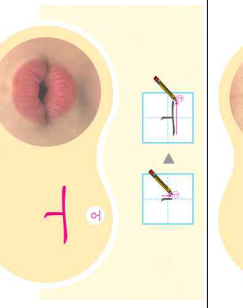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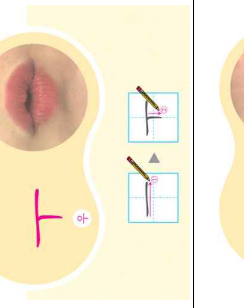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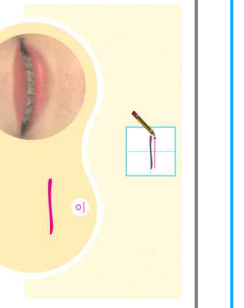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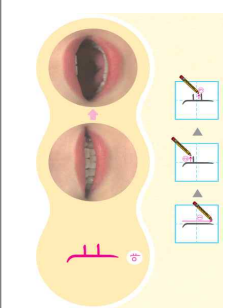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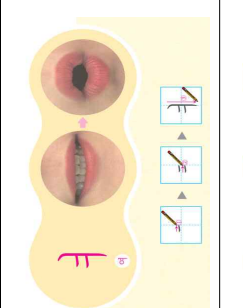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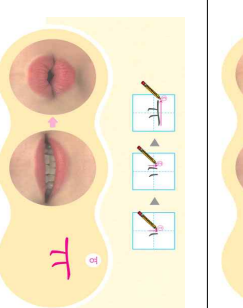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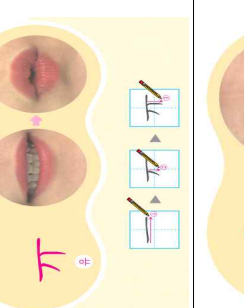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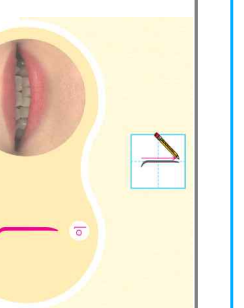
② 소리마디 수가 같은 낱말 이어 말하기

주사위에 나온 소리마디 수에 맞는 낱말을 떠올려 돌아가며 하나씩 말한다. (예 하나일 경우 '목 → 공 → 해 → 강 → 달 → 눈.....')

③ 앞 낱말의 끝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이어 말하기

'사자 → 자전거 → 거미 → 미끄럼틀을 차레대로 따라 읽으며 앞말의 마지막 소리가 뒷말의 처음 소리와 같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④ 모음자를 안다

한글 놀이

⑤ 모음의 구성

모음자들은 소리뿐 아니라 철학적인 원리도 바탕으로 삼아서 만들어졌다. 모음들도 기본적인 모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적인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글을 만든 사람은 당시 우리말의 기본 모음을 셋으로 보고 이것을 'ㅣ', 'ㅡ', 'ㅏ'로 나타내었다. 'ㅣ'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상징하고,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상징하고, 'ㅏ'는 포켓이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상징한다. 동양의 철학에서는 이 하늘, 땅, 사람을 3재(三才)라고 하여 만물의 근본 요소로 생각하는데, 모음 글자를 만들 때 이 생각을 적용한 것이다.

•	+	ㅣ	ㅏ	ㅑ	ㅓ	ㅕ
ㅡ	ㅗ	ㅛ	ㅜ	ㅠ	ㅡ	ㅣ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ㅣ	ㅗ	ㅛ	ㅜ	ㅠ	ㅡ	ㅣ

⑥ 단모음과 이중 모음

국어에는 총 21개의 모음이 있다. 이러한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음이다. 반면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다. 모음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이중 모음: ㅗㅏ, ㅛㅑ, ㅜㅓ, ㅠㅕ, ㅓㅗ, ㅕㅛ, ㅗㅓ, ㅛㅕ, ㅓㅕ, ㅕㅓ, ㅗㅕ, ㅕ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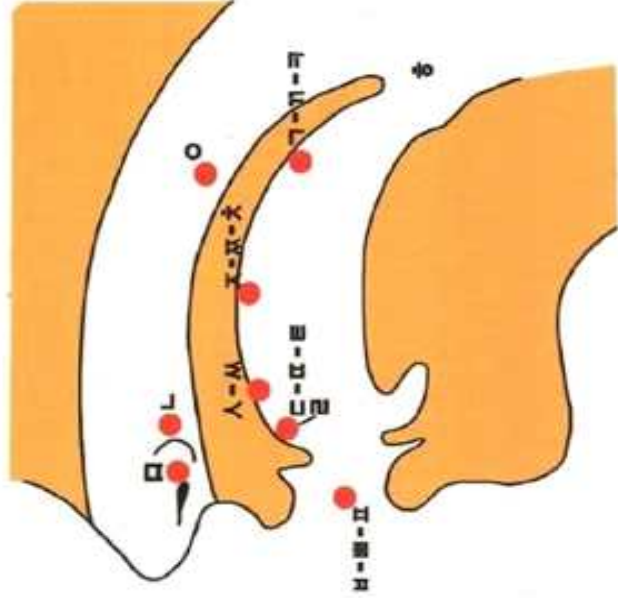
1 자음자를 안다

ㄱ, ㅋ, ㆁ		ㄱ ㅋ ㆁ
ㄴ, ㄷ, ㅌ, ㄸ		ㄴ ㄷ ㅌ ㄸ
자음자 ㄷ, ㅌ, ㄸ 알기		<p>ㄷ (디) + ㅌ (이) → ㄷㅌ (다)</p> <p>ㅌ (티) + ㅌ (이) → ㅌㅌ (타)</p> <p>ㄸ (딤) + ㅌ (이) → ㄸㅌ (따)</p>
ㅁ, ㅂ, ㅍ, ㅃ		ㅁ ㅂ ㅍ ㅃ
ㅁ (미음)		입술을 붙였다. 때면서 'ㅁ'
ㅂ (비음)		'ㅁ'에서 마개를 더 내보내면 'ㅂ'
ㅍ (피음)		'ㅁ'을 두 배로 강하게 할 때 'ㅍ'이 된다. 'ㅍ'
ㅃ (비음)		'ㅁ'에서 마개를 더 내보내면 'ㅃ'

한글 놀이

ㅅ, ㅆ, ㅈ, ㅊ, ㅊ		ㅅ ㅆ ㅈ ㅊ ㅊ
ㅇ, ㅎ		ㅇ ㅎ

■ **조음 위치**
 조음 위치(調音位置, 소리나는 위치)는 자음을 조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조음 위치의 명칭은 주로 조음을 받는 조음기관 중 위턱에 있는 조음기관의 명칭으로 결정한다.



2 자음자 알기

• 자음자의 이름을 쓰고, 자음자의 소리에 주의하며 읽어 봅시다.

보기

ㄴ	→	ㄴ	→	ㅇ	→	ㄴ
ㄴ	→	ㅇ	→	ㄴ	→	ㅇ
ㄴ	→	ㅇ	→	ㅇ	→	ㅇ
ㄴ	→	ㅇ	→	ㅇ	→	ㅇ
ㄴ	→	ㅇ	→	ㅇ	→	ㅇ

기역	니은	디귤	리을	미음	비음	시옷
ㄱ	ㄴ	ㄷ	ㄹ	ㅇ	ㅁ	ㅅ
이음	지읒	치읓	키읔	티을	피윽	히읇
ㅇ	ㅈ	ㅊ	ㅋ	ㅌ	ㅍ	ㅎ

[1-1-1] 글자를 만들어요.

[문법 / 쓰기 / 읽기 성취기준]

문법[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쓰기[2국03-01] 글자와 단어를 바르게 쓴다.
 읽기[2국02-01]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1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한글의 결합 법칙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반침이 없는 글자를 스스로 읽고 써 보며 한글 해독 능력을 기르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단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글자에서 자음자와 모음자의 위치를 찾아보며 **반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알아본다. **기본 음절표를 제시해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2 바르게 읽고 쓰는 자세를 익히고, **다양한 모음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단원 1과 소단원 2는 학습자가 한글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신체 활동, 말판 놀이, 조작 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이 단원의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각각 초성과 중성으로 만나 글자**를 이루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또 한글이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고,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이로써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문자 언어를 이해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2 단원 지도 유의사항

- 1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로, 한글을 깨우치는 데 필요한 **자음자와 모음자의 소리값을 알고, 그것을 조합하는 원리**를 익혀야 한다. 낱자 카드, 낱자 주사위, 말판 놀이, 신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 원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이외의 다양한 조작 활동과 놀이 활동으로 한글의 짜임을 익히고, 글자를 읽고 써 볼 수 있게 한다. 이때 글자를 소리 내어 읽고 쓰는 활동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학생이 **납말의 의미까지**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1학년 교실에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학생부터 **유창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섞여 있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4 낱자지식

낱자란 단어의 각 소리를 듣고 쓸 수 있는 음성 표기이다. 낱자 지식이란 **자모음 낱자의 모양을 변별하고, 자모음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낱자 지식은 아동의 읽기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변인 가운데에서 강력한 변인으로 인식된다. 아동이 글자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 글자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경우보다 글자의 소리를 더 잘 습득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자모음자 이름이 낱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음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낱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낱자 소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ㄱ'의 이름은 '기역'인데, 이 자음자의 소리를 [기역]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 낱자 학습은 낱자의 이름을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낱자의 이름을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즉, 낱자 학습에서는 'ㄱ'을 보고 [기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간혹 '기역' 글자를 읽으려고 하거나 '기역'을 쓰도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가지 낱자의 이름을 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5 손으로 글씨 쓰기의 좋은 점

글씨 쓰기는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을 말한다. 소근육 운동 기술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 표기 처리 능력, 즉 글자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기억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글자의 시각적 이미지를 잘 알고 있어야 글씨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씨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단순한 손으로 연필을 움직이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글자의 시각적 형태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손으로 글씨를 쓰려면 전자 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참을성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 연필을 칠 때 필요한 손힘을 기를 수 있다. 연필 쥐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밑가루나 지점도 반추, 종이 오리기 등의 놀이를 통해 역력을 키울 수 있다.
- 손 글씨를 쓰면 바른 자형이나 필순 지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좋다

6 글씨 쓰기

- 단원에서 배운 중요한 낱말을 연습하는 활동이다.
- 학생들이 **자음자와 모음자의 위치**를 생각하며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글씨를 쓸 때에는 글자의 짜임을 생각하며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글씨를 쓸 때 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앉아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4 이 단원에서는 1학년 특성을 고려해 한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를 활용한 글자 만들기 놀이, 모음자 말판 놀이를 제시했으며, '실전 학습'에서도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추가로 제시했다.

6 단원 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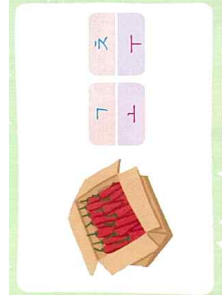
- 1 평가방법
 - ▶ 학생들이 반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지 지필 평가 방법을 활용해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낱말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모음자의 위치가 서로 다른 낱말을 사용해 평가한다.
 - ▶ 학생들이 낱말의 짜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수행 평가를 활용해 평가한다. 자모음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의미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무의미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반침이 없는 단어를 정확하게 유창하게 읽는 것은 추후 반침이 있는 단어 읽기의 기초가 되므로, 성취하지 못한 학생은 개별 지도를 하며 글자와 소리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에 따른 지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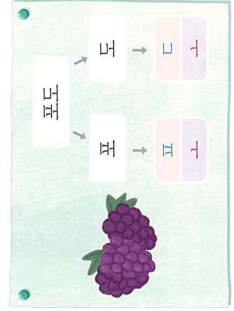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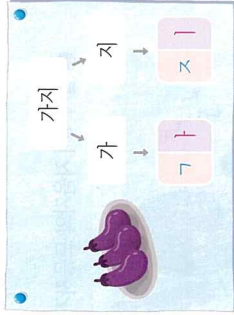
평가 결과	지도 방안 예시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음절 낱말을 먼저 지도하고, 다음절 낱말을 지도한다. • 낱자 자석을 활용해 자음자와 모음자를 붙여 보며 글자를 만들거나, 글자를 종이에 쓴 뒤 자음자와 모음자를 잘라보며 글자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글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음자에 대응하는 소리값과 모음자에 대응하는 소리값을 지도한다. • 기본 음절표를 활용해 소리와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을 지도한다. • 자모음자에서 단어로 확장하며 소리와 글자를 대응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① 글자에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②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보고 글자의 짜임을 알아봅시다.



③ 파닉스와 기초 낱말 읽기

낱말 읽기는 쉽게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발현 문해력을 기반으로 발달한다. **낱말 읽기에서 기본은 낱말에 쓰인 자모 글자의 음가를 조합하는 것이며, 이것을 명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파닉스 지도이다.**

파닉스는 어느 특정 읽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글자-소리 대응 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읽기를 지도하는 접근법을 총칭한다. 파닉스 지도는 아동이 자모 글자가 소리를 나타낸다는 원리, 즉 자모 글자-소리 대응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파닉스로 읽기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낱말 읽기와 맞춤법에서 더 뛰어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파닉스 지도는 글자-소리의 대응 관계를 지도하는 것이므로 음운 인식과 자모 글자 지식 지도가 파닉스 지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④ 기본 음절표

모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가	나	다	라	마	바	사	ㅇ	ㅈ	ㅊ
	까	나	다	랴	먀	뵤	샤	ㅇ	ㅈ	ㅊ
	거	너	더	러	머	버	셔	ㅇ	ㅈ	ㅊ
	고	노	도	로	모	보	소	ㅇ	ㅈ	ㅊ
	교	뇨	도	료	묘	보	쇼	ㅇ	ㅈ	ㅊ
	구	누	두	루	무	부	수	ㅇ	ㅈ	ㅊ
	규	뉴	두	류	무	부	슈	ㅇ	ㅈ	ㅊ
	그	느	드	르	므	브	스	ㅇ	ㅈ	ㅊ
	기	니	디	리	미	비	시	ㅇ	ㅈ	ㅊ

※ 기본 음절표를 보면서 같은 자음자에 다른 모음자가 결합할 때, 같은 모음자에 다른 자음자가 결합할 때 서로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안 내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⑤ 글자를 만드는 원리 알기



시 소

모 자

두 부

글자가 되려면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자음자는 글자에서 왼쪽이나 위쪽에 있습니다.

모음자는 글자에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있습니다.

※ 자음자는 혼자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모음자는 혼자서 소리가 나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자음과 모음

제2항 표준어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ㄹ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ㅍ ㅎ

제3항 표준어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ㅜ ㅠ ㅡ ㅣ ㅜ ㅠ ㅡ ㅣ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국어의 단모음을 발음상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모음**

단모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ㅏ'와 'ㅑ'를 예로 들어 볼게요.
'ㅏ'를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가만히 있는 반면, 'ㅑ'를 발음할 땐 입이 움직이죠?

'ㅏ'처럼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참고로 'ㅓ'와 'ㅕ'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ㅓ'와 'ㅕ'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답니다.(표준 발음법 제4항)

⑥ 모음 사각도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키	ㅜ 위	ㅡ 를	ㅜ 주
중모음	ㅑ 게	ㅓ 되	ㅓ 었	ㅓ 소
저모음	ㅓ 내		ㅓ 가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와 같이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ㅑ'와 'ㅓ'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알기 Tip!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1-1-1] 글자를 만들어요.

제5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반모음 'ㅛ'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반모음 'ㅓ'로 끝나는 이중모음	ㅡ
반모음 'ㅓ'/'ㅕ'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ㅓ ㅑ ㅓ ㅕ

① 소리 내어 읽기의 중요성

초보 독서자들이 음소를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가운데 유용한 것으로 '**음운론적 재 부호화**'라는 것이 있다. 큰소리로 읽기를 시키면서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두 파트로 이루어지는 여동적 프로세스에 붙인 이름치고 '큰 소리 내서 읽기'는 너무 단순해 보인다.

큰 소리 내어 읽기는 아이들에게 **구술 언어와 문자 언어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방법은 초보 독서자들에게 나름의 자가 학습법을 제공하는 '독서 학습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 음운론(phonology)은 언어의 소리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리의 강약, 억양, 발음 등이 포함된다.
- 음소(phonemes)는 소리의 기본 단위로서 모든 언어에는 모음과 자음의 기본 음소가 있는데, 이들의 수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다.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고, 그 발생적 특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음운론적 발달의 대표적인 예이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② 여러 가지 모음자 알기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① 환경적 문자를 활용해 발생적 문식성을 신장하는 교실 수업
 노이만과 그 동료들은 환경적 문자를 이용해 어린 아동의 발생적 문식성을 촉진하는 수업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아동에게 몇 가지의 낱익은 환경적 문자를 소개한다. 그리고 환경적 문자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낱자를 개별적으로 가르친 다음, 아동에게 해당 낱자를 쓰게 한다. 노이만과 그 동료들은 환경적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일 반적인 활자를 활용해 가르치는 방법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취학 전 교실 수업 전략으로서 환경적 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낱자-소리 지식, 낱자 쓰기, 문자 읽기와 같은 측면에서 어린 아동의 성취를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비록 환경적 문자에 대한 지식이 자동적으로 일반적인 문자에 대한 지식 습득을 이끌 수는 없지만, 수업 전략으로 환경적 문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일반적인 문자에 대한 지식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② 글씨 쓰기 학습의 의의
 글씨 쓰기는 바른 글씨를 연습하고, 바르게 쓰는 자세를 익히며, 연필을 잡는 방법을 숙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명확한 점과 획으로 단정한 글자를 조화 있게 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글씨 쓰기 학습이 단지 문자와 낱말을 익히고 이해하는 방편 정도로 취급되거나, 미술과 서예에 밀려서 조형미를 추구하는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컴퓨터와 같은 도구가 널리 사용되면서 글씨 쓰기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글씨 쓰기는 여전히 모든 학습의 기초이고, 표현의 기본 과정이다. 따라서 글씨 쓰기에 대한 관형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글씨 쓰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글씨 쓰기에 인지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글씨 쓰는 기능이 충분히 숙달되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씨 쓰기는 네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올바른 자세
 둘째는 글자(문장 부호 포함)의 종류를 바르게 쓰기
 셋째는 용구(연필, 붓, 펜, 크레파스 등)의 바른 사용 방법
 넷째는 글씨를 통한 마음가짐의 내면화가 그것이며, 글씨 쓰기 지도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③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소 문자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컨대 '구름', '나무', '볼다', '달리다'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 [花]'이라는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꽃이 [꼬치]/꽃과 [볼과]/꽃나무 [핀나무])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문법/ 듣기-말하기/ 쓰기 성취기준]

문법[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듣기-말하기[2국01-04]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른 자세로 발표한다
쓰기[2국03-01] 글자와 단어를 바르게 쓴다.

①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듣고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단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소단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자음자-모음자-자음자’)**을 파악하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는 방법을 배운다.
- ②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듣는 태도를 기른다. 기초 문식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한 해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생활 속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집중해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으며 바른 자세로 듣고 말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단원의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바른 발표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의 말을 집중해 듣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단원 활동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구어와 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② 단원 지도 유의 사항

- ① 학생들에게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알기, 받침이 있는 글자 읽기를 지도하기 위해 받침이 있는 글자와 받침이 없는 글자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글자 아래쪽에 있는 자음자가 받침임을 알고, **글자에 받침이 들어가면 글자의 소리와 뜻도 달라진다**는 것을 지도한다.
- ② 글자 읽기-쓰기와 듣기-말하기의 기초적인 이해·표현 활동으로 의사소통 역량의 기초를 다져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 ③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로 발표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듣기**를 지도하기 위해 발표를 할 때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을 ‘준비 학습’에서 상기시키며 지도한다. 그리고 바른 발표 자세와 듣기 자세를 지도한다.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④ 1단원의 받침이 없는 글자 익히기 학습에 이어, 이번 단원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익히며 기초 문해력을 점차 확장해 가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또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의사소통의 기본인 바른 말하기듣기 자세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⑤ 단원 평가 계획

- (1) 평가 방법
 - ▶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이를 활용해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고 쓸 수 있으면 학습 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평가한다.
 - ▶ 받침이 있는 글자가 들어간 짧은 글을 활용해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그리고 짧은 글과 관련한 낱말의 받침을 쓰고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 학생들이 **공식적인 말하기** 활동인 발표를 바른 자세로 하는지 평가할 때 교사 관찰, 학생 자기 평가를 활용해 평가한다.
 - ▶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자세로 집중해 듣는지 평가한다.

(2) 평가에 따른 지도 방안

평가 결과

지도 방안 예시

- 그림에 어울리는 받침을 찾지 못하는 경우**
- 그림과 받침이 있는 글자를 비교하며 교사가 천천히 소리 내어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 준다.
 - 학생은 교사가 읽어 주는 소리를 듣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따라 읽으며 받침이 있는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연결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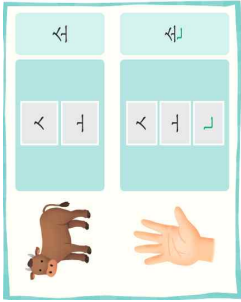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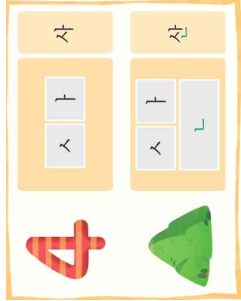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발표하는 경우

-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해 주며 조금이라도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하며 격려한다.
- 무조건 큰 소리로 발표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④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안다.

이 차시는 소단원 1의 기본 학습으로, 받침이 없는 글자에 받침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음자-모음자-자음자’의 순서로 조합해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아는 것이 목적이다.



⑤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쓰기 발달 단계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쓰기 발달 단계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과제에서 제시된 표면적인 목적은 고려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거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화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알맞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조직하는 전략이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형식 단락이나 내용 단락에 대한 인식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쓰기 발달 단계
 -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쓰기의 목적이나 동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전 학년에 비해 **글감이나 화제를 비교적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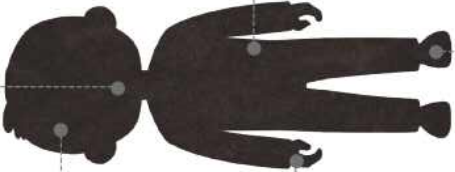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① 글자에 알맞은 받침을 <보기>에서 골라 써 봅시다.

<p>보기</p> <p>ㅅ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p>	 <p>지 ㅁ</p>	 <p>눈 ㄴ</p>	 <p>벌 ㄹ</p>
 <p>바 ㅅ</p>	 <p>기 ㅁ</p>	 <p>파 ㅌ</p>	 <p>나 ㅈ</p>
 <p>부 ㅅ</p>	 <p>모 ㅍ</p>	 <p>우 ㅈ</p>	<p>나 ㅈ</p>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②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 봅시다.



<p>눈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았다.</p> <p><input type="checkbox"/> O <input type="checkbox"/> X</p>	<p>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p> <p><input type="checkbox"/> O <input type="checkbox"/> X</p>
<p>손을 자연스럽게 내렸다.</p> <p><input type="checkbox"/> O <input type="checkbox"/> X</p>	<p>허리를 곧게 세웠다.</p> <p><input type="checkbox"/> O <input type="checkbox"/> X</p>
<p>다리를 어깨너비만큼 자연스럽게 벌렸다.</p> <p><input type="checkbox"/> O <input type="checkbox"/> X</p>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③ 바른 자세로 자기소개하기

- 초기 단계의 기초 문식성 학습 시기이므로 학생들간에 기초 문식성 학습의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쓰기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주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 좋아하는 음식, 잘하는 것 등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쓰기를 돕기위하는 학생의 경우, 구두 언어로 교사와 학생의 묻고 답하기 활동을 진행해 학생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한다.
- 이 활동은 말하기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친구 활동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공식적인 말하기 과제인 발표를 경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칭찬과 격려로 학생의 긴장을 풀어 주고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도록 한다